21C 화학산업 발전을 위하여!

CMRI 10년과 한국 화학산업

화학경제연구원(CMRI)이 설립된 지 어언 10년이 지났다. 1991년 2월1일 설립됐으니 강산이 한번 변한 세월을 보낸 것이다. 아니 강산이 한번 변화한 것이 아니라 10번도 더 변했으리라 생각될 정도로 3650일동안 화학산업계와 오감과 회한이 교차되는 숱한 경험을 교환했다. 아마도 신-구 갈등과 새로운 질서가 자리를 잡아가는 과도기였기 때문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화학경제연구원이 창립된 1991년은 한국 화학산업이 요동치던 시기였다. SK-대림산업으로 대표되던 석유화학산업은 삼성과 현대가 신규참여해 크래커를 비롯한 석유화학 컴플렉스를 완공하는 단계였음은 물론 LG, 호남, 한화, 대한유화 등도 폴리머를 등에 업고 크래커를 완공했거나 한창 건설중이었다.

한국 석유화학산업의 가장 큰 병폐로 지적되는 Up은 기초유분 소비를 위해 Down으로, Down은 기초유분 자급을 위해 Up으로 경쟁적으로 진출함으로써 신-구 갈등이 첨예화됐음은 물론이다. 또 무모한 신증설이 부른 급격한 공급과잉으로 석유화학제품 가격이 폭락함으로써 석유화학기업들이 만성적인 적자에 직면하는 바로 그 시기였다.

Chemical 및 무기화학도 독과점의 안방독주가 한계를 드러내기 시작해 인디아 및 중국의 저가공세와 유럽·미국 및 일본의 고부가가치제품 공세 앞에서 국내기업들은 한치 앞을 볼 수 없을 정도로 혼탁한 시기였다. 국내 화학기업들은 중국 및 인디아 공세에 맞서 소다회를 비롯한 반덤핑 공세를 본격화하는 시기였다. R&D 투자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기보다는 저가를 핑계로 수입을 막는 바람에 저가제품 수입은 일정부분 견제할 수 있었지만 고가제품은 안방을 고스란히 선진국에 내주는 꼴이 되고 말았다.

CMRI 10년의 경험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안방부자 10년 못간다』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의 한국 화학산업, 특히 석유화학산업을 보노라면 옛 격언이 틀린 말이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나오는 국면이다. 한국의 재벌들이 지각변동을 경험하고 「대마불사」의 신화가 무너질 줄이야 그 누가 알았겠는가 말이다.

무모한 진출로 석유화학을 멍들게 했던 현대석유화학과 삼성종합화학이 일본 Mitsui상사에게 구걸하며 제발 인수해달라고 통사정하고 그것도 신통치 않자 퇴출위기에 몰릴 지, 1970-80년대를 풍미했던 SK(유공)와 대림산업이 이미 석유화학사업을 해체했거나 매각을 추진중일 줄이야 꿈이나 꿀 수 있었겠는가 말이다.

1988년쯤으로 기억되지만 대림산업은 5000억원 안팎의 매출로 순이익 1500억원을 기록함으로써 재벌들을 놀라게 한 적이 있다. 매출의 30% 정도가 순익으로 남는다는 것은 생각하기도 힘들었던 시기였다. 하지만, 대림산업 석유화학사업부가 전무후무한 기록을 갱신함으로써 한국 석유화학산업이 오늘날 이 지경에 이르렀다면 「대림의 원죄」가 참으로 컸다고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대림산업이 많은 수익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경영진의 각고의 노력이 있었겠지만, 문제는 그 많은 수익을 R&D 또는 재투자 등으로 사용하지 않고 건설부문의 부채상환에 투입함으로써 석유화학사업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실패해 현대와 삼성이 무모하게 뛰어드는 촉매제 역할을 했던 것이 사실이다.

R&D와 설비 현대화, FineChem 투자를 강화해 경쟁력을 끌어올렸다면 현대, 삼성이 석유화학에 뛰어들 찬스를 잡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이다. 물론 「이웃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재벌심리상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한국 화학산업의 과도기적 현상이 10년을 지배해왔고, 과도기적 10년이 갈등과 반목과 무질서와 비효율을 극대화시키는데 크게 작용했다는 것이다. 중심축이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CMRI도 한국 유일의 화학경제연구원으로서 10년이란 세월을 지내오면서 과연 중심축으로서 역할을 했는지, 한국 화학산업을 위해 과연 무엇을 제시했는지 반성하고 있다. 원칙을 지키고 정론을 펴온 것은 사실이지만 국내 화학산업이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방법론적으로 문제가 있었다고 자책하고 있다.

한국석유화학협회 성재갑 회장이 신년인사회 인사말을 통해 한국에는 화학경제를 연구하는 전문연구소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협회가 그 역할을 대신해야 할 것이고 2001년에는 그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한 대목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으며, 뼈아프게 반성하고 있다. 석 · 박사급 연구원 6명을 둔 CMRI가 혹평받았기 때문이다.

CMRI는 과거 10년도그러했지만 앞으로 100년도 화학산업과맥을 같이하면서한국 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국가경쟁력강화에온힘을다할것임을다시한번천명한다.

<화학저널 2001/2/5>